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2, 289 - 305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최명심* 손정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아 관련, 대인관계 및 가족, 학업, 여가 활동 그리고 환경 등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75개의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50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된 75 문항의 질문지에 답변하게 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 만족도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종 척도는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가, 대인관계, 가족, 학업, 환경 등 5요인이 추출되었다. 2) 본 척도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60-.84로 적절하였다. 3) 본 척도의 점수와 생활 만족도 척도 점수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척도가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관적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간의 궁극적인 행위의 동기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70년대의 일이다(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특히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부정적이고 정신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온 반면,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편으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명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63-270-2925, E-mail : genes225@hanmail.net

심리학에서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이훈구, 2004).

행복 혹은 삶의 질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객관적인 지표, 예컨대, 나이, 성, 수입, 교육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삶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삶의 질 총 변량이 약 15% 이하로 나타나며(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이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경계선을 지나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진다(Suh & Diener, 1995)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외적인 준거들은 삶의 질에 대한 대리적 혹은 간접적인 지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Diener(1984)는 삶의 질은 규범적 평가, 인지적 평가 및 정서적 평가 등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즉, 규범적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은 삶은 주관적 심리상태가 아니라 외적 기준과 조건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상태로 정의된다. 외적 기준은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과 같은 정신적인 수준과 품위있는 소비생활, 사회적 신분, 교육 수준, 여가 시간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되는 영역까지 다양하다. 이 외적 기준은 현대에 맞는 행복이 아니라 특정의 가치구조에서 관찰자에 의해 판단된 바람직한 상태이다.

인지적 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이렇게 주관적 안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Shin과 Johnson(1978)은 행복을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따른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Dubos(1976)는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삶의 질이라고 하였으며, Andrews와 Withy(1976)는 그들이 조사한 피험자들의 99% 이상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내재된 가치판단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는 인지과정의 주관적 견해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평가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반응이 삶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관적 안녕은 즐거운 정서경험을 강조한다. Bradburn(1969)은 행복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포괄적 평가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Veenhoven, 1991)은 최소한 두 개의 일반적인 측면, 즉 정서적인 측면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그리고 인지적 측면인 생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이

심리적 기능, 사회복지 기능, 신체적 기능, 역할 기능, 사회적 기능, 건강과 고통의 지각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aronson, Beth, Bard, Bloom, Fawzy, Feldstein, Fink, Holland, Johnson, Lowman, Patterson, & Ware, 1991). Taylor와 Bogdan(1996)은 삶의 질을 개인, 가족, 사회의 주된 요소와 함께 그 삶의 주인인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개인적 수용의 차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삶의 질은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객관적 상황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복지 수준과 이러한 복지 수준들이 표현하는 외적인 환경 즉 사회적 관계와 통합 및 이를 통한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Felce & Perry, 1996). Fabian(1991)은 인생 만족, 적응기능, 사회적 지표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Blunden(1988)은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인지적 행복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Bennett(1951)은 생활의 구성요소를 음식물과 담배, 건강, 주거 및 피복, 교육과 여가, 교통 및 통신, 균형지표로 선정 한 후 각 그룹과 관련있는 19개 지표를 설정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Neugarten, Havighurst 및 Tobin(1961)에 의해 개발된 척도는 흥미와 무관심, 결심과 참을성, 바라던 목표와 성취한 목표 사이의 일치성, 긍정적인 자아상, 기분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0문항으로 작성되어 있다. Liu(1974)는 미국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방법으로 개인적 상태, 개인의 형평성, 생활 조건, 농업생산성, 기술 발전, 경제적 상태, 교육상태, 보건과 복지, 주와 지방 정부의 행정력 등 9개의 사회, 경제, 정치 및 환경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Campbell(1981)은 생활 만족감

에 기여하는 변인들로 건강, 재정, 가족관계, 봉급, 우정, 주택, 생활의 동반자, 여가활동, 종교, 자기 존중감, 교통 및 교육 등 12가지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 신도철(1981)은 한국인의 삶의 질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 긍정적 차원은 만족감, 유쾌감, 부정적 차원은 불만족과 근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주택, 이웃, 재정문제, 결혼문제, 자녀교육, 집안일, 친우관계, 여가활동, 자신의 교육, 직업, 정부, 정부상태 등 12개로 구성된 영역을 통해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허재구(1986)도 가정생활, 주거생활, 건강상태, 교육기관, 직장활동, 저축 및 자금 활동, 이웃 및 친족관계, 여가시간의 활용, 인구증가, 환경 교통 생활 편의시설, 전쟁불안, 인권, 공과금 등 정부와의 관계 등 12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된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노유자(1988)는 일반 성인의 삶의 질의 영역을 정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 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가족관계로 구분하였으며, 임희섭(1996)은 자아실현, 가계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및 지역사회 등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현송(1997)은 객관적인 삶의 차원을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정보, 형평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각각의 연구가 비록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념을 분류해 왔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 측면으로는 삶의 만족, 삶의 과정과 성취, 삶에의 적응 같은 견지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내적 측면(예, 자존감, 자기 수용, 성격, 자아 개발), 관계적 측면(예, 배우자, 자녀 및 가족과의 관계, 우정, 사회공헌, 사회정치적 조건) 및 기타 측면(건강과 질병, 경력과 직무, 여가, 종교)과 같은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포함한다(Westerhof, Dittmann-Kohli, 및 Thissen 2001).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집단의 삶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세대 간 구분 없이 유사하게 총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인생의 주기별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Dittmann-Kohli(1995)는 노년층(60-90)은 삶에서 건강과 생활 만족에, 젊은층(17-25)은 일, 교육만이 아니라 자아, 개성 및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 발달 과정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자아기능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는 개인 내적 측면을 노년 세대에는 개인 간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Ryff(1989)는 중년층은 일과 경력뿐만 아니라 자아신념, 자아수용 등에 더 집중하는데 반하여 노년층은 건강과 생활변화 수용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세대별로 다른 삶의 질 개념과 초점의 차이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므로 삶의 질은 연령의 차원과 생의 주기를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로 Erickson의 인간 발달 단계로 살펴보면 5단계인 자아정체감 대 정체성 혼란의 시기와 6단계인 친

밀감과 고립감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관한 모든 자기상을 고정시키고 이 자기상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개인적 정체성에 통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혼란스럽거나, 충동에 좌우되거나, 부모의 가치에 저항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거나 반항적이지도 않지만,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욕구와 심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치, 믿음, 주체성 직업 또는 이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며, 변화와 압력과 실망, 상처로 인한 분노, 자존심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죄의식 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정석환, 1989).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부와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및 Wilson(1985)은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삶의 질에는 가정, 학교, 사회가 이들의 삶을 위해 배려하는 것으로, 용돈, 학교의 교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이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이란 자신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수준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가족의 건강, 학교에서의 관심, 사회적 치안상태 등이 속한다. Eiser, Havermans 및 Eiser(1994)는 질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친구, 신체적 건강, 물질적 소유, 신체적 외모 및 과제 수행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김의철과 박영신(2004)

은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청소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생활, 여가생활, 친구관계, 학업 성취를 들고 있다. 김수연과 이은경(199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생활영역, 대인관계영역, 경제 및 주거영역, 가치관 영역, 종교영역, 정보화와 민주화 영역, 여가 및 시간관리 영역, 가족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단일 도구로 일반 청소년과 대학생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개인 내적 측면, 관계적 측면 및 기타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인생의 큰 영역인 일, 가족과 결혼생활, 친구관계, 경제문제, 여가생활, 사회현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 관련, 대인관계 및 가족, 학업, 여가, 환경 등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측정하고자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지방 소재 J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총 60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한 면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작위 응답을 한 4명의 자료는 제외되었으며, 총 59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 구성 절차

척도 제작은 먼저,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영역별로 15문항을 선정하였다.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은실과 홍성화(2002), 서경희(1995), 김남재(1995), 안범희(1985) 및 조호경(2001)이 개발한 대인관계 친밀감, 대인관계 성향 그리고 대인관계 불안 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문항은 주로 친구관계와 관련된 지각으로 구성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수연(1999), 전귀연(1993), 신운오와 조수철(1995)이 개발한 가정환경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가족 내에서의 친밀감 지각 및 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와 관련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박아청(1996), 서봉연(1975), 전병재(1974), 이훈진과 원호택(1995) 등이 개발한 자아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문항은 주로 자신의 신체적 외모, 건강 및 정신적인 만족감과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및 전공과 관련된 질문지를 위해서는 김은정(1992), 하혜숙(2000), 정혜윤(2005), 현진원(1992) 등이 개발하거나 사용한 대학생활 적응도 및 만족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전공

에 대한 만족, 교수와의 관계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가 만족 척도는 양명환(2000), 정영권(1997), 김종현(2002) 및 김덕진(2002)이 개발한 질문지 등 여가 만족과 참여 만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여가를 위한 시간, 비용 및 모임 등에 관련된 평가를 요구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에 관한 질문과 유현정(2004)이 개발한 일반적인 사회 환경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안정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지각 그리고 환경을 위한 자신의 노력 등을 묻는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15개씩 총 75개의 문항을 선정한 후, 어휘의 난이도와 이해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리학과 대학원생 4명에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나 용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2	40.5
	여	356	59.5
연령	만19세 이하	255	42.8
	만20세	101	16.8
	만21세	81	13.5
	만22세	52	8.7
	만23세	48	8.0
	만24세	31	5.2
	만25세 이상	28	4.8
학년	1학년	293	49.1
	2학년	96	16.1
	3학년	132	22.1
	4학년	76	12.7
가정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4	5.9
	100-200만원	190	33.2
	200-300만원	212	37.0
	300-500만원	96	16.8
	500만원 이상	39	6.8
	무응답	2	3
종교	기독교	215	36.0
	천주교	59	9.9
	불교	36	6.0
	기타	9	1.5
	없음	275	46.1
	무응답	3	0.5

도구

생활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및 Criffin(1985)이 일반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 상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원 척도의 Cronbach’ α는 .72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2이었다.

자료 분석

척도 개발을 위한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를 알아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방법은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사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출 요인 수 결정은 내용타당도, 고유치, Scree plot 등을 참고로 하였다. 셋째,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활용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추정하였다. 넷째,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생활 만족도 검사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3.0 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문항이 삶의 질 측정 목표와 역할 등 제구실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문항반응 분포를 살펴보았다. 상대도수분포를 통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문항으로 5점 척도 중 한 번호에 60%이상이 치중된 경우를 제거하고, 다음으로 75문항에서 문항-전체 상관이 .40이하인 문항(24, 62)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준거에 해당하는 문항은 학업 영역과 환경 영역에서 각 한 문항으로 총 2문항이 제거되고 남은 문항은 총 73문항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삶의 질 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또 Scree 검사에서 고유치 하락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섯 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행렬표와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검토해 본 결과 각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 .40미만으로 낮은 문항(5,8,11,12,13,14,16, 18,19,21,29, 31,39,41,44,45,46,55,59,66,65,67,70,74,75), 공통분(communality)이 .40미만인 문항, 요인 적재량이 2개 이상의 요인에 중첩되어 있는 문항(23,28,30,38,52)들이 있어 문항 내용의 중복이나 각 요인별 문항수를 고려하여 30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43개의 문항을 요인 수 5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각의 요인을 다시 분석하여 문항 간 일치도를 구하였

다. 이때, 각 요인의 일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 (2,4,6,9,26,35,36,40,42,60,73)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3, 57, 64)을 삭제하여 총 29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1.2%를 설명해주었으며, 요인 각각의 설명력은 16.6, 10.6, 6.2, 4.3, 3.5로 나타났다. 척도의 각 요인에 속한 문항과 요

표 2.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형태 요인계수 행렬

문항	요인계수				
	1	2	3	4	5
요인 1. 여가 영역(9문항)					
48. 나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59)	.73	.10	-.23	.14	.22
47. 나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얻는다. (.65)	.66	.09	-.25	-.01	.17
27. 나는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70)	.65	.11	-.25	.05	.29
56. 나의 여가활동은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67)	.62	.05	-.18	.08	.21
33. 나는 동일 취미를 갖는 동호회나 모임을 즐긴다.(.69)	.57	.11	-.20	.06	.19
25. 나의 여가활동은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64)	.55	.16	-.18	-.04	.07
58. 나는 여가생활을 같이 하는 부류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 (.62)	.54	.10	-.27	.08	.31
53.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에 만족하고 있다. (.66)	.54	.12	-.11	.12	.24
20. 내 여가활동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62)	.54	.05	-.23	.10	.02
요인 2. 대인관계 영역(7문항)					
54.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71)	.11	.83	-.11	.21	.04
22.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64)	.15	.79	-.13	.22	.06
61.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79)	.11	.68	-.15	.51	.08
0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81)	.12	.65	-.09	.18	.05
71. 이성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인간관계가 불편하다. (.74)	.05	.60	-.03	.23	.00
17. 나의 몸은 허약한 편이다. (.56)	.17	.54	-.06	.15	.02
63. 나에게서 성적 매력이 없는 것 같다. (.69)	.17	.45	-.08	.28	.10
요인 3. 가족 영역(5문항)					
72.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 (.73)	.25	.02	-.75	.12	.20
37.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낀다. (.71)	.23	.14	-.74	.03	.16
50. 나의 가족은 서로 간에 친밀감을 느낀다. (.80)	.22	.16	-.74	-.00	.09
07.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79)	.21	.02	-.64	.15	.12
32. 나는 가족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80)	.30	.12	-.62	.16	.07
요인 4. 학업 영역(4문항)					
15.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한다.(.75)	.10	.39	-.12	.65	.07
43. 전공과 졸업 후 활동하려는 분야가 달라서 고민이다.(.68)	.01	.29	-.05	.65	.13
49.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77)	.07	.29	-.03	.59	.08
34. 전공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74)	.06	.09	-.14	.58	.09
요인 5. 환경 영역(4문항)					
69.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대책이 만족스럽다.(.63)	.18	.02	-.01	.03	.76
68. 문제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64)	.17	.07	-.15	.09	.47
51. 주변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시설에 만족한다.(.66)	.21	.05	-.16	.03	.45
10. 거리의 교통안전 대책에 만족한다.(.75)	.09	.01	-.07	.11	.43

인구성 및 요인부하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제 1 요인은 여가와 관련된 9문항, 제 2 요인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7문항, 제 3요인은 가족과 관련된 5문항, 제 4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4 문항 그리고 제 5요인은 학교 및 사회 환경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29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α값은 .83이었다. 또한 하위 척도 각각의 Cronbach' α값은 제 1요인 .84, 제 2요인 .83, 제 3요인 .82, 제 4요인 .71 그리고 제 5요인 .60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4문항에서 많아야 9문항에 불과한 적은 문항 수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로 여겨진다.

요인분석에서 제안된 5개 요인별로 하위 척도를 구성하고 하위 척도 총점과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문항-하위 척도 총점 상관은 .56에서 .81사이였으며, 문항-하위 척도 총점

상관의 평균은 요인별로 각각 .65, .71, .77, .74, .6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준거 타당도 검증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 생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삶의 질 척도와 각 하위 척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만족도 척도는 삶의 질 척도와 5개의 하위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본 척도가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과 지각된 삶의 질의 관계

개발된 척도를 통하여 성별, 연령, 학년, 가구 소득, 용돈, 종교, 종교의 유무, 건강, 미래 생활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삶의 질 척도에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

표 3. 생활만족도, 삶의 질 척도 및 하위 척도 간 상관

	생활만족도	삶의 질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생활만족도						
삶의 질	.62**					
요인 1	.51**	.67**				
요인 2	.08*	.53**	.16**			
요인 3	.44**	.54**	.31**	.14**		
요인 4	.13**	.47**	.07	.38**	.12**	
요인 5	.35**	.41**	.24**	.06	.15**	.10**

*p<.05(양방검증), **p<.01(양방검증)

를 보이고 있었으며, $t_{(556)}=2.80, p<.001$,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각 요인별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여가 활동 영역과 학교 및 사회 환경 영역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고 있다, $t_{(591)}=3.56, p<.001$; $t_{(592)}=4.76, p<.001$.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종교의 유무와 연관되었는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577)}=3.06, p<.01$. 각 요인별 집단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종교의 종류가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종교의 종류는 전체 삶의 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F_{(5, 551)}=3.51, p<.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 검증을 한 결과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삶의 질에 대한 학년, 연령, 종교의 종류, 가구 소득, 용돈, 건강 및 생활 수준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하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녀 차이 검증

요인	평균(표준편차)		t
	남자(n=241)	여자(n=353)	
요인 1	26.50(4.94)	25.09(4.61)	3.56**
요인 2	24.45(5.80)	23.66(5.74)	1.63
요인 3	18.90(3.43)	18.92(3.45)	-.07
요인 4	12.56(3.41)	11.91(3.53)	2.23
요인 5	10.81(2.34)	9.94(2.09)	4.76**

** $p<.001$

표 5. 하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교유무 차이 검증

요인	평균(표준편차)		t
	종교 유 (n=241)	종교 무(n=353)	
요인 1	26.16(4.79)	25.09(4.74)	2.73**
요인 2	24.18(6.06)	23.75(5.43)	.89
요인 3	19.25(3.54)	18.50(3.27)	2.68**
요인 4	12.27(3.73)	12.04(3.21)	.80
요인 5	10.57(2.16)	9.97(2.28)	3.26**

** $p<.001$

학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은 연령이나 학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정의 소득과 용돈에 따라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개인의 용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의 소득 수준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F_{(5, 531)}=2.82, p<.05$.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한 결과 월 100-200만원 미만과 월 300-500만원 미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과의 관련성은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건강 상태보다는 건강에 대한 자신의 인지가 주관적인 삶의 질과의 상관에서 더 크다는 보고에 따라 “매우 건강, 대체로 건강, 대체로 약함, 병이 있어 불

편함”이라는 네 가지의 답변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각은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_{(3, 553)}=12.23, p<.001$. Tukey 사후 검증을 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한 학생들과 ‘대체로 건강’ 그리고 ‘매우 건강’과 ‘대체로 약함’이라고 인지한 학생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생활수준에 대한 답변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_{(3, 553)}=9.98, p<.001$. Tukey 사후 검증을 통하여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미래의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령, 학년, 종교의 종류, 가구소득, 용돈, 건강 및 생활수준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구분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2255.38	8	281.392	.45
	344219.80	547	629.29	
학년	571.089	3	190.36	.30
	346262.21	553	626.15	
종교종류	10704.84	5	2140.97	3.51***
	336063.22	551	609.92	
가구소득	8549.67	5	1709.94	2.82*
	322466.97	531	607.28	
용돈	3942.18	5	788.44	1.27
	3343131.55	537	622.22	
건강	21376.99	3	7125.663	12.23***
	322244.97	553	582.72	
생활수준	17655.78	3	5885.26	9.98***
	325966.17	553	589.45	

* $p<.05$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되어 오고 있는 생활 만족도 척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먼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자아관련 영역, 대인관계 및 가족 영역, 학업 영역, 여가 영역, 환경 영역 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동일한 문항(15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문항(29문항)은 여가 영역에서 9문항, 대인관계 영역에서 7문항, 가족 영역에서 5문항, 학업 영역에서 4문항, 환경 영역에서 4문항이 채택되었다. 대인관계 및 가족 영역은 각각 분리되었으며, 자아관련 영역은 대인관계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자아개념은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 대학생(청년 후기)에게는 부모의 지지보다 또래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옥분, 2005)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환경 영역에서는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대책, 음식점의 위생시설, 경찰의 용이한 도움, 교통안전 등이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의 이상 고온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발발하는 천재지변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범죄와 폭력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우발적이며 저연령화, 특수화되는 상황에서 치안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증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환경이 자신의 생활공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성별에 따른 삶의 질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고하지만 긍정적인 감정 역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복감이나 만족에서는 대개 성차이가 없다는 이전 연구(Diener, 1984)와는 다른 결과이다. 반면, 조명한 등(1994)의 연구에서는 생활 영역 전반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인 생활사건 영역 면에서는 남녀 청소년간의 차이 패턴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 영역과 환경 관련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삶의 질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대에서 60대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 요소를 분석한 김명소, 김혜원, 김지영 및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 여가 활동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값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적인 부분이 삶의 질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의 월 소득액과 용돈이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자신이 쓰고 있는 용돈의 액수는 삶의 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은 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 등(1976)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소득을 통한 물질적 안정 외에 삶에서 다른 의미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용돈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가족의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대학생의 주

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돈보다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유무는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낮은 정신증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Francis & Katz, 1992; Lewis & Joseph, 1884; Lewis & Maltby, 1995; Maltby, 1999), 기독교 신앙이 스트레스에서 완충 작용을 한다(최영민, 이정호, 이기철, 전성일, 1998)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출석과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와 역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조명한 등(1994)은 종교적 신앙과 종교집단에의 참여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종교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제안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질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불확실하게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후기 청소년들이 미래의 전망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발달적 추이를 반영(Bradford, Donna, & Alexandra, 2002)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연구하는 국내의 논문들에서는 생활 만족도 척도,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의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단일 척도를 구성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아울러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본 척도가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면, 척도가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용인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보고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73-81.
- 김덕진 (2002).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유형과 활동만족, 활동 제약 및 대학생활 만족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수연, 이은영 (1996). 대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32(1), 74-93.
- 김은정 (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종현 (2002). 검도수련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노유자 (1988). 서울 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박아청 (1996). 한국청소년 정서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 서경희 (1995). 경험적 접근에 의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연구-주관적 지표에 의한 시론. 한국 국제 문화 협회, 아시아 총론, 106(8), 76-97.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 26-47.
- 신윤오, 조수철 (1995). 한국형 가정환경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4(1), 280-290.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양명환 (2000). 여가 스포츠 참여동기, 제약요인 및 만족도에 대한 분석: 윈드서핑.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1), 469-478.
- 유현정 (2004). 한국 성인의 삶의 질 척도개발과 집단별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수연 (1999).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의 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은실, 홍성화 (2002). 대인관계 친밀감 척도 타당성 및 개발 연구. 학생연구(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3, 47-57.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 269-301.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 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서울: 범문사.
- 이훈진과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 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정석환 (1989). 카운슬링 가이드, 서울: 기독 지혜사.
- 정영권 (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혜윤 (2005). 대학생의 생활스포츠 참여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한국 사회과학, 16, 61-94.
- 조호경 (2001). 대상관계이론을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이 자기지각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최영민, 이정호, 이기철, 전성일 (1998). 기독교 신앙이 대기업 사무직 직장인의 스트레스 과정에 미치는 완충효과. 신경정신의학, 37(5), 894-902.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 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Aaronson, N. K., Beth, E. M., Bard, N., Bloom, J. R., Fawzy, F. I., Feldstein, M., Fink, D., Holland, J. C., Johnson, J. E., Lowman, J. T.,

- Patterson, W. B., & Ware, J. E. (1991). Quality of Life Research in Oncology—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iorities, *Cancer*, 67, 839-843.
- Andrews, F. M., & Robinson, J. P. (1991).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London: Academic Press.
- Andrews, F. M., and S.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ennett, M. K. (1951). International Disparities in Consumption Level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32-649.
- Blunden, R. (1988). *Quality of life in person with disabilities: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services, in Brown. R.I(eds). Quality of life for handicapped people*. Groom Helm, 37-57.
- Bradford, R., Rutherford, D. L. & John, A. (2002).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ratings and factor structure of the Quality of Life Profile-Adolescent Version. *Journal of Adolescence*, 25, 261-274.
- Bran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ham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ham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5), 42-575.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very wealt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263-274.
- Dittmann-Kohli, F. (1995). *Das personliche Sinnsystem Ein Vergleich zwischen fruherm und spatem Erwachsenenalter*, Hogrefe, Gottingen.
- Dubos, R. (1976). The state of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25(1), 8-9.
- Eiser, C., Havermans, T. & Eiser, J. R. (1994). What do children mean by "quality of life"? *Health Psychology Update*, 16, 10-13.
- Fabian, E. S. (1991). Using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rehabilitation program evalu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4(4), 334-356.
- Filce, D., & Perry, J. (1996).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Schalock and Siperstein(eds). *Quality of Life, Vol. I*, AAMR: DC, 63-72.
- Francis, L. J. & Katz, Y. J.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religiosity in an Israeli sample.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1, 153-162.
- Lewis, C. A., & Joseph, S. (1994). Religiosity: psychoticism and obsessionality in Northern Irish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685-687.
- Lewis, C. A., & Maltby, J. (1995). Religiosity and personality among U.S.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293-295.
- Liu, Ben-Chieh. (1974). Quality of Indicato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87-208.
- Maltby, J. (1999). Religious orientation and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The use of the amended religious orientation scal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psychoticis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79-84.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ugarten, B., Havighurst, S., &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5). Family inventories. st.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 Ryff, C. D. (1989). In the eye of the beholder: View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6, 286-295.
- Shin, D. C., and D. M. Johnson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uh, E., E. Diener, & F. Fujita (1995).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sions*.
- Taylor, S. J., & Bogdan, R. (1996). Quality of Lif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in Schallock and Siperstein(eds). *Quality of Life, Vol. 1*, AAMR; DC, 11-22.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esterhof G, J., F. Dittmann-Kohli, & Thissen, T. (2001). Beyond life satisfaction: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179-203.
- 논문접수일: 2005년 11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2월 1일
게재결정일: 2007년 3월 17일

Exploration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Scale with Undergraduate Studen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MyungShim Choi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the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s, 75 preliminary items were constructed in the five categories; self, interpersonal and family, job, leisure & environment. Initial items were distributed to 598 undergraduate students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Subject Quality of Life Scale was administrated correlation with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The main results wer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f this scale showed that the five factor was meaningful. Each factors labeled leisure, interpersonal, family, job, environment. The number of items of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 reduced to 29 items. 2) The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α) of each factors in it showed .60-.84. 3)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t seemed that they have significantly correl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is scale will be helpful to appraise and evaluat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Keywords : Subjectiv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with Life